

# 한국어 번역 독일문학 서지에 나타난 역자의 번역 활동과 관계 구조의 역사 계량서지학적 분석\*

## A Historical Bibliometric Analysis of Translators' Activities and Relational Structures in the Bibliography of Germ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Korean

박 지 영 (Ziyoung Park)\*\*

이 재 윤 (Jae Yun Lee)\*\*\*

### 목 차

- |                  |                                  |
|------------------|----------------------------------|
| 1. 서 론           | 5. 역자의 번역 활동 특성                  |
| 2. 이론적 배경        | 6.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 분석을 통한 역자 관계 구조 |
| 3. 연구 데이터와 분석 절차 | 7. 결 론                           |
| 4. 역자의 번역 생산 구조  |                                  |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어 번역 독일문학 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번역 수용 과정의 핵심 행위자인 역자의 활동 양상과 관계 구조를 역사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번역사 계량서지학 연구가 주로 번역된 대상인 원저자와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이 연구는 역자를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그들의 번역 생산 구조, 번역 활동 특성, 번역 대상 선택에 따른 역자 간 상호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독일문학 번역서지 DB를 기반으로 역자별 번역건수를 집계하여 생산 집중도를 파악하고, 핵심 역자의 번역 대상 원저자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를 기반으로 역자 간 관계를 정의하고 네트워크 및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번역 생산은 소수 역자에게 집중되며, 핵심 역자들은 대상 원저자 다양성과 번역 횟수를 근거로 하여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자 간 관계는 대상 원저자 중심으로 군집화되며, 번역 수용은 역자 집단의 집중과 분화, 관계 구조를 통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분석 대상을 역자로 확장하여 역자 활동 특성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역자 간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activity patterns and relational structures of translators as key agents in the reception of German literature translated into Korean using a historical bibliometric approach. Unlike previous bibliometric studies of translation history that have focused primarily on translated authors and works, this study treats translators as independent units of analysis and examines their production structures, activity characteristics, and inter-translator relationships based on the selection of translated authors. Using a bibliographic database of translated German literature, it measures the concentration of translation output by aggregating the number of translations per translator and analyzes the distribution of translated authors among core translators. It further defines relationships among translators based on the overlap of translated authors and applies network and clustering analyses to identify structural patterns. The results show that translation output is highly concentrated among a small number of translators and that core translators can be classified into distinct types according to their translation output and the diversity of translated authors. In addition, translator relationships form clusters centered on shared translated authors, indicating that the reception of German literature is structured through the concentration, differentiation, and relational organization of translator groups. This study extends the scope of bibliometrics of translation history to translators and proposes a method for quantitatively measuring translators' activity characteristics and analyzing relationships among translators.

키워드: 번역사 계량서지학, 역사 계량서지학, 독일문학 번역, 역자 분석, 네트워크 분석, 군집분석

Bibliometrics of Translation History, Historical Bibliometrics, German Literature in Translation, Translator Analysis, Network Analysis, Cluster Analysis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지식정보문화트랙 교수

(zgpark@hansung.ac.kr / ISNI 0000 0004 6330 9099) (제1저자)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memexlee@mju.ac.kr / ISNI 0000 0004 6490 0075)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26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26년 5월 2일 게재확정일자: 2026년 5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0(2): 53-74, 2026. <http://dx.doi.org/10.4275/KSLIS.2026.60.2.053>

© Copyright © 2026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번역사는 특정 언어권의 문학이 다른 언어문화권으로 이동하고 수용되는 과정을 다루는 연구 분야로서, 전통적으로 개별 작품이나 번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접근은 번역 텍스트의 의미 해석과 문화적 맥락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데 강점을 가지지만, 장기간에 걸친 번역 활동의 전체 구조나 변화 양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최근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서지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문학 연구에서도 정량적 분석을 통해 장기적 흐름과 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번역서지 데이터는 특정 문학이 외부 문화권에서 어떻게 선택되고 반복적으로 번역되며 수용되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 번역사 연구에 계량적 접근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재윤과 박지영(2025)은 한국어로 번역된 독일문학 작품을 대상으로 번역 횟수, 번역 대상 원저자의 변화, 번역 h-지수 등을 분석하여 번역사의 주요 경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번역사 연구에 역사계량서지학(historical bibliometrics)의 접근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번역사 계량서지학(bibliometrics of translation history)이라는 연구 영역의 성립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국내 연구는 독일 문학의 한국어 번역을 다룬 이재윤과 박지영(2025) 이외에도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을 다룬 유건수 외(2023), 전기화 외(2023), 최은경(2024) 등이 있다. 해외에서도 중

국 문학(Zhou & Sun, 2016), 체코 문학(Vimr, 2024), 북유럽 범죄소설(Berglund et al., 2024) 등의 번역사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사례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들과 같이 번역사를 계량적 기법으로 접근한 기존 연구는 주로 번역된 대상, 즉 원저자와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문학 번역은 단순히 원작이 다른 언어로 옮겨지는 단선적인 과정이 아니라, 번역가가 외국어 텍스트 선택과 번역 방법 개발을 실험할 수 있는 담론적 실천이며, 주로 목표 언어 문화의 현 상황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Venuti, 1995, 41). Lefevere(1992, xi)도 번역은 수동적인 전달이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능동적인 '다시 쓰기(rewriting)' 작업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번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번역되었는 가뿐 아니라, 누가 번역했는가라는 문제도 중요하다. 이재윤과 박지영(2025)은 계량서지학 분야에서 인용된 저자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인용한 저자에 대한 분석이 활발하듯이, 번역사 계량서지학에서도 번역된 원저자와 작품에 대한 분석 뿐만 아니라 번역한 역자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하지만 기존의 번역사 계량서지학 연구에서 역자는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번역 횟수나 원저자 중심의 분석을 통해 수용 구조를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쳤으며, 번역을 수행한 행위자 집단의 구조와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제한적이었다. 국내 연구 중 예외적으로 최은경(2024)은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한 역자 간의 공동 번역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문학 작품의 공동 번역은 논문의 공

동 저술만큼 흔하진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조가 파편적으로만 나타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경(2024)의 시도는 역자 간 협력 관계에 대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5년 최종 구축이 완료된 한국어 번역 독일문학 서지 DB를 활용하여, 번역 수용 과정의 핵심 행위자인 역자의 활동 양상과 상호 관계를 역사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역자의 번역 생산 구조와 번역 대상 원저자 기반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역자를 중심으로 한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분석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번역 생산 구조’는 역자별 번역 횟수의 분포와 집중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한하여 사용한다. 방법론 면에서는 역자 간 관계를 공동 번역이 아닌 번역 대상의 중복 정도로 측정하는 역자 서지 결합분석(Translator Bibliographic Coupling)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계량서지학의 기법 중에서 저자 서지결합분석 기법(이재윤, 2008)을 번역사 연구에 응용한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전체 역자 집단의 번역 생산 구조를 파악하고, 핵심 역자들의 번역 대상 원저자 분포와 활동 시기를 분석하며, 나아가 동일 원저자를 번역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역자 간 관계를 정의하고 그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다. 이러한 접근은 번역사를 단순한 작품의 누적이 아니라, 특정 행위자 집단의 선택과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구조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별 역자의 번역 활동 프로필을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 문제 1. 한국의 독일문학 번역을 주도한 핵심 역자군은 누구이며, 그 생산 구조는 어떠한가?
- 연구 문제 2. 독일문학 역자들은 번역 대상을 선택하는 활동 특성에 따라서 어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 연구 문제 3. 번역 대상 원저자의 공유 관계를 통해서 독일문학 역자들은 어떤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통해 이 연구는 역자의 생산, 선택, 관계라는 세 차원에서 번역 수용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후 2장에서는 역사 계량서지학과 번역사 계량서지학의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고, 역자 중심 분석의 필요성과 본 연구의 분석 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연구 데이터와 분석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역자의 번역 생산 구조를 분석하고, 5장에서는 역자의 번역 활동 특성 지표를 분석하며, 6장에서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 분석을 통해 역자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와 군집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이론적, 방법론적 의의를 논한다.

## 2. 이론적 배경

역사 계량서지학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의 범위에서 생산된 출판물을 대상으로 그 특성과 변

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Hérubel, 1999)으로 정의된다. 이 접근은 문헌의 생산과 유통, 지식의 확산, 문화적 수용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인문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번역사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의 가능성이 점차 주목받고 있다. 번역은 특정 문학이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하는 과정이며, 번역서지 데이터는 그 과정의 흔적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역서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면 특정 문학이 언제, 어떤 저자를 중심으로, 얼마나 집중적으로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재윤과 박지영(2025)은 이런 관점에서 독일문학 번역서지를 분석하여 연도별 번역 추세, 번역 대상 원저자의 변화, 번역 h-지수 등을 통해 번역사의 구조를 규명한 바 있다. 이는 번역사 연구에 계량서지학적 접근을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계량서지학에서 핵심적인 분석 단서는 인용(citation)이며, 이는 인용된 저자나 문헌이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이러한 인용 관계를 번역으로 치환하면, 번역된 원저자나 작품이 번역된 언어문화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번역사의 관점으로 확장할 수 있다(이재윤, 박지영, 2025).

인용을 번역으로 치환함으로써 번역사 계량서지학은 문학 작품이 번역을 통해 특정 언어문화권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확산되는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영역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분석의 단서는 원저자, 작품, 시기뿐만 아니라 번역을 수행한 역자와 이를 매개하는 출판사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역자는 특정 저자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번역하거나, 여러 저자의 작품

을 선택적으로 번역함으로써 특정 문학 전통의 수용을 조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점에서 역자 집단의 구조와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번역 수용의 실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역자 간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 계량서지학의 서지결합(bibliographic coupling) 개념을 차용하였다. 서지결합은 두 문헌이 동일한 참고문헌을 공유할 때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는 방법이다(Kessler, 1963). 서지결합의 단위를 문헌이 아닌 저자에 적용하여 두 저자가 같은 저자를 인용하면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보는 방법이 저자 서지결합(이재윤, 2008; Zhao & Strotmann, 2008)이다. 이를 번역사에 적용하면, 두 역자가 동일한 원저자의 작품을 번역할 경우 이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를 기반으로 역자 간 관계를 정의하면, 특정 원저자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번역가 집단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 3. 연구 데이터와 분석 절차

#### 3.1 연구 데이터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에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독일문학 번역서지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서지데이터는 물리적인 번역서를 단위로 작성된 일반 서지데이터에 비해 고도화된 구조를 지니는데,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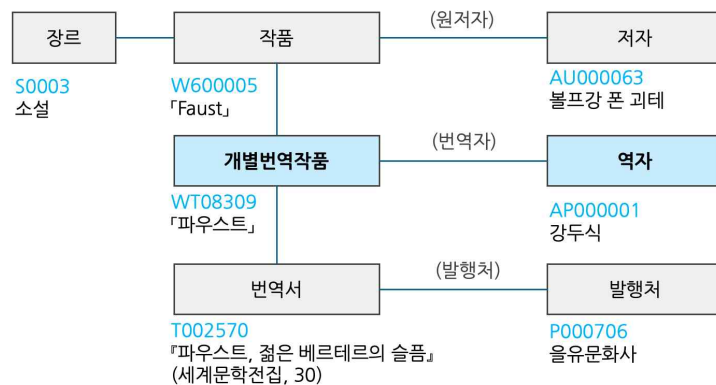
에서 제시한 서지데이터의 개념 모형(IFLA Library Reference Model)을 바탕으로 물리적인 번역서가 아닌 특정 저자의 작품(work) 단위를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이재윤, 박지영, 2025).

이 번역서지 DB에서 특정 작가의 개별 작품은 그 작품이 담긴 물리적 매체인 단행본이나 연속간행물의 데이터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일반 서지데이터보다 개별 작품과 그 번역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분석 단위로 사용한 '개별번역작품'은 하나의 작품이 특정 역자에 의해 특정 매체에서 번역·수록된 단위를 의미하며, 역자 분석과 역자 간 관계 분석을 연결하는 핵심 단위로 기능한다. 이 데이터는 서지정보 전문가가 개념모형을 바탕으로 데이터 구조를 설계한 뒤, 독일문학 전문가가 직접 실물자료와 대조하여 저자명, 역자명, 작품명, 수록 매체 등 주요 서지 정보를 식별·입력하고, 이후 서지 전문가가 중복 데이터와 입력 오류를 검수·수정하는 절차를 거쳐 구축되었다. 분석 전처리 과정에서는 동일한 번역 사례가 중복 집계되지 않도록 개별번역작품 단위를 기준

으로 중복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역자명과 저자명의 동명이인 여부는 독일문학 전문가의 확인과 함께 역자의 활동시기, 번역 대상 작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였다. 다만, 한글명이 동일하더라도 한자명 등 식별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별개의 역자로 처리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개별 번역 행위를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식별할 수 있게 하며, 역자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작품, 개별번역작품, 번역서, 저자, 역자, 장르, 발행처 등의 개체를 코드화하고 관계형 구조로 연계함으로써, 장르별·저자별·역자별·작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은 작품 단위를 중심으로 개별번역작품을 매개로 하여 번역서와 저자, 역자, 발행처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26).

분석 대상 서지 데이터에 따르면, 번역 대상 작품 수는 총 8,271편이며, 번역 대상 원저자 수는 197명이다. 또한 장르별 분포를 보면 시가 6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소설, 수필, 희곡이 그 뒤를 잇는다(<표 1> 참조).



<그림 1> 작품 중심 번역서지 데이터 구조(예시)

〈표 1〉 장르별 번역 대상 작품 수와 비중

장르	시	희곡	소설	수필	연설/웅변	일기/서간/ 기행	아동청소년 문학	기타	합계
작품 수	5,504	231	1,615	560	20	36	37	268	8,271
비중	66.5%	2.8%	19.5%	6.8%	0.2%	0.4%	0.4%	3.2%	100.0%

이 연구에서는 번역을 수행한 역자를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였다. 전체 데이터에서 역자 미상을 제외한 역자 수는 1,359명, 역자가 확인된 총 번역건수 합계는 24,670건으로 집계된다. 공동번역의 경우에는 각 역자마다 동일한 번역 기록을 생성하고 집계하였다.

이후 5장의 역자 번역활동 특성과 6장의 역자 간 관계 분석에서는 100회 이상 번역한 핵심 역자 57명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의 번역 횟수 합계는 14,891회로 전체의 60.4%를 차지한다. 100회를 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102회부터 107회까지의 구간에는 8명의 역자가 촘촘하게 분포한 반면, 101회 이하부터 97회 이상 구간에는 해당 역자가 없고, 그 이하인 91~96회 구간에 4명만 위치하여 102회와 96회 사이에 뚜렷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준을 110회 이상에서 100회 이상으로 낮추면 8명의 역자가 추가되고 전체 번역 횟수 대비 비중은 3.4%포인트 증가하지만, 다시 기준을 90회 이상으로 낮추더라도 추가되는 역자는 4명에 그치며 번역 횟수 비중도 1.5%포인트만 증가한다. 이는 100회 이하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추가 확보되는 역자 수와 번역 횟수 비중의 한계 증가분이 감소하는, 일종의 엘보 지점이 100회 부근에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번역 생산 집중도와 기준 완화에 따른 한계적 추가 효과를 함께 고려하여, 번역 횟수 100회 이상을 핵심 역자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3.2 분석 절차

역자의 번역 활동을 생산, 선택, 관계의 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역자별 번역건수를 집계하여 전체 역자 집단의 생산 구조와 집중도를 분석하였다. 이때 각 역자의 번역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역자 순위와 누적 비율을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번역 생산이 소수 역자에게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번역건수의 누적 분포를 통해 상위 역자 집단이 전체 번역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함으로써, 번역 수용 과정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역자 집단을 식별하였다.

둘째, 핵심 역자가 선택한 번역 대상 원저자 분포를 분석하여 번역 활동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때 역자별 번역 대상 원저자의 다양성을 엔트로피(entropy) 공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특정 역자가 다양한 저자의 작품을 고르게 번역하는지, 또는 특정 저자에 집중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 지표이다. 각 역자의 번역 횟수와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 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역자의 번역 활동 특성을 파악한 후, 다양한 원저자를 번역하는 역자군과 특정 원저자 번역에 집중된 역자군 등과 같이 특성이 두드러진 역자 유형을 구분하였다.

셋째,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를 기반으로 핵심 역자 간 관계를 정의하고 네트워크를 구

성하였다.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는, 두 역자가 동일한 저자의 작품을 번역한 경우가 많을수록 이들 사이의 관계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역자 간 관계 행렬을 구성한 후, 이를 기반으로 역자 간 관계 구조를 페스파인더 네트워크(Schvaneveldt, 1990)로 시각화하였다. 또한 병렬최근접이웃클러스터링(PNNC) 기법(이재윤, 2006)을 적용하여 역자 집단을 여러 군집으로 분류하고, 각 군집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페스파인더 네트워크 구축과 PNNC 군집분석은 WNet 프로그램(이재윤, 2013)으로 수행하였다.

각 분석 절차에서 사용한 기법의 상세한 내용과 기법 적용 시 고려한 세부 사항은 해당 장에서 소개하였다.

#### 4. 역자의 번역 생산 구조

##### 4.1 역자 규모와 번역 횟수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자 관련 통계를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여기서는 역자 미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집계했다. 분석 결과 전체 역자 수는 1,359명이며, 이들의 총 번역 횟수 합계는 24,670건으로 집계된다. 소설 번역에 참여한 역자가 1,0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 273, 희곡 238, 수필 106명의 순이었다.

독일문학의 한국어 번역 활동은 다수의 역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보이지만, 실제 번역 생산은 특정 역자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역자별 번역 횟수 평균은 18.2회이지만, 시를 제외하면 평균이 10회를 넘는 장르가 없고 수필이 평균 9.9회, 소설이 평균 7.1회로 나타났다. 평균에 비하면 역자별 번역 횟수 중앙값은 대부분의 장르에서 1~2회에 불과하였다. 이는 개별 역자의 번역건수 분포가 정규분포와 같지 않고, 상당수의 역자가 소수의 번역만을 수행한 반면 일부 역자는 매우 많은 번역을 수행하였음을 나타낸다. 역자별 번역건수를 기준으로 상위 역자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번역 생산의 집중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번역 횟수 200회 이상인 역자 22명(상위 1.6%)이 전체 번

<표 2> 장르별 역자 통계

구분	시	희곡	소설	수필	연설/웅변	일기/서간/기행	아동청소년문학	기타	전체
번역 횟수	14,941	794	7,156	1,049	35	195	140	360	24,670
역자 수	273	238	1,013	106	19	93	75	94	1,359
작품별 번역 횟수 평균	2.8	3.5	4.4	1.9	1.8	5.3	4.0	1.4	3.0
역자별 번역 횟수 평균	54.7	3.3	7.1	9.9	1.8	2.1	1.9	3.8	18.2
역자별 번역 횟수 중앙값	7	1	2	2	1	1	1	1	2
역자별 번역 횟수 최댓값	1,129	43	317	107	4	17	8	74	1,332

역 횟수의 41.2%를 차지했는데, 이들을 독일문학 최상위 선도 역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번역 횟수 140회 이상인 36명(상위 2.6%)의 역자가 전체 번역 횟수의 절반이 넘는 12,430회(50.4%)를 차지했다. 번역 횟수 100회 이상인 역자 57명(상위 4.2%)의 번역 횟수 합계는 전체의 60.4%를 차지했는데, 이후 이들을 독일문학 핵심 역자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장의 번역 생산 구조 분석에서는 분량을 고려해서 최상위 선도 역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5장과 6장의 선택 및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핵심 역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번역 횟수 1위는 1,332회인 송영택이었고, 2위는 1,072회의 허수경, 3위는 1,001회의 김재혁이었다. 이들만이 번역 횟수 1천회 이상 이었고, 4위인 구기성(581회) 이하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분포는 독일문학 번역 활동이 다수의 역자에 의해 수행되었음에도, 양적 생산 측면에서는 소수의 핵심 역자에게 크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번역 생산 분포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번역 대상 원저자의 집중 현상과도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인다(이재윤, 박지영, 2025). 즉, 특정 원저자가 반복적으로 번역되는 현상은 해당 원저자의 작품세계에 친착한 특정 역자의 집중적 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4.2 번역 횟수 상위 역자

200회 이상 번역한 최상위 선도 역자는 총 22명이었으며, 이들의 장르별 번역 횟수는 <표 3>과 같다. 번역 횟수 최상위 1.6%에 해당하는 선도 역자는 시 번역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경우

가 많지만, 홍경호(소설 번역 317회), 박환덕(소설 번역 244회), 이주동(소설 번역 236회), 배중환(소설 번역 182회) 등과 같이 소설을 많이 번역한 역자도 보인다. 홍경호와 곽복록은 수필 번역 횟수도 각각 107회와 97회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장르별로 번역 횟수가 많은 상위 10위 이내 역자들을 따로 정리해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는 각 장르에서 반복적으로 번역 작업을 수행한 선도 역자 집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국내 독일문학 번역에는 장르별로 반복적인 번역 활동을 수행한 주요 역자군이 존재하며 이들이 장르별 번역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장르를 넘나들며 여러 장르에서 동시에 상위 10위 이내에 포함되는 역자들도 일부 보인다. 이들이 주로 번역한 대상 원저자가 둘 이상의 장르에서 작품활동을 활발히 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홍경호는 소설과 수필에서 모두 1위, 송영택은 시 번역 1위인 동시에 소설 번역 4위이다. 또한 박환덕은 소설(2위)과 희곡(9위)에서, 곽복록은 소설(8위)과 수필(8위)에서 동시에 상위권에 위치했다. 번역 장르를 넘나든 4명 모두 소설 상위 10위에 포함된 역자들어서 독일 문학 중 소설 장르의 번역이 가장 활발함을 알 수 있다.

## 5. 역자의 번역 활동 특성

### 5.1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 지표

4장에서 번역 생산의 집중 구조를 확인한 데 이어,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 2를 해결하기 위

〈표 3〉 200회 이상 번역한 최상위 선도 역자의 장르별 번역 횟수

역자	시	희곡	소설	수필	연설/웅변	일기/서간/ 기행	아동청소년 문학	기타	합계
송영택	1,129		183			4	2	14	1,332
허수경	1,052			17	3				1,072
김재혁	912	2	83	1		3			1,001
구기성	519		62						581
장영태	549	1	3	4				3	560
전영애	462	2	81	2	2	1		1	551
김주연	412	1	103	5					521
홍경호	28	3	317	107		17		2	474
곽복록	201	16	115	97	1	1		1	432
이정순	326		43	3					372
임우영	343		5					4	352
손재준	305	4	17						326
장만영	310		3					1	314
강두식	122	31	152	1		4		4	314
박환덕	6	16	244	7		11		1	285
김은주	277		1						278
김광규	239	3	24	1	4				271
이동일	268								268
이주동			236	10		4			250
성춘복	215								215
배중환		12	182			5		5	204
김정환	199		3					1	203

〈표 4〉 주요 장르별 번역 횟수 상위 역자

시 번역		희곡 번역		소설 번역		수필 번역	
역자	횟수	역자	횟수	역자	횟수	역자	횟수
송영택	1,129	이원양	43	홍경호	317	홍경호	107
허수경	1,052	강두식	31	박환덕	244	곽복록	97
김재혁	912	윤도중	30	이주동	236	윤현자	73
장영태	549	김충남	29	송영택	183	윤순호	64
구기성	519	정민영	27	배중환	182	이영희	47
전영애	462	이재진	25	강두식	152	남기철	43
김주연	412	임호일	18	이준미	143	임채영	42
임우영	343	곽복록	16	곽복록	115	박근영	36
이정순	326	박환덕	16	박종서	115	김명수	35
장만영	310	입헌순, 최석희	14	박병덕	115	정민영	32

해서 핵심 역자의 번역 활동 특성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각 장르별로 주요 역자군이 파악되는데, 저자별로도 주요 역자가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역자가 장르를 넘나들며 번역하듯이, 여러 저자의 작품을 다양하게 번역하는 역자도 있다. 예를 들어 번역 횟수 3위(1,001회)인 김재혁은 번역 대상 원저자 수도 37명(2위)으로 매우 많다. 이보다 번역 대상 원저자가 더 많은 43명으로 1위인 임홍배는 번역 횟수는 164회로 26위에 그친다. 한편 번역 횟수 1,072회로 2위인 허수경은 번역 대상 원저자 수는 단 2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번역 횟수와 번역 대상 원저자 수는 크게 다를 수도 있어서 역자의 번역활동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번역 대상 원저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여러 원저자의 작품을 고르게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한두 원저자를 집중적으로 번역하고 나머지 원저자의 작품은 몇 편씩만 번역한 것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다. 따라서 다양한 원저자의 작품을 고르게 많이 번역한 정도를 반영하는 별도의 지표 산출이 필요하다.

특정 역자가 다양한 원저자의 작품을 고르게 번역하는 정도를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은 번역 횟수와 함께 특정 역자의 번역 활동 양태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특성이 된다. 각 역자의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은 엔트로피(entropy) 공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대상 원저자별 번역 횟수 합계가 N회인 어떤 역자의 번역 대상 원저자 수가 K명이고, 번역 횟수가  $n_i$ 인  $i$ 번째 대상 원저자의 번역 횟수 비율을  $p_i = n_i/N$  라고

하면,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은 다음 공식으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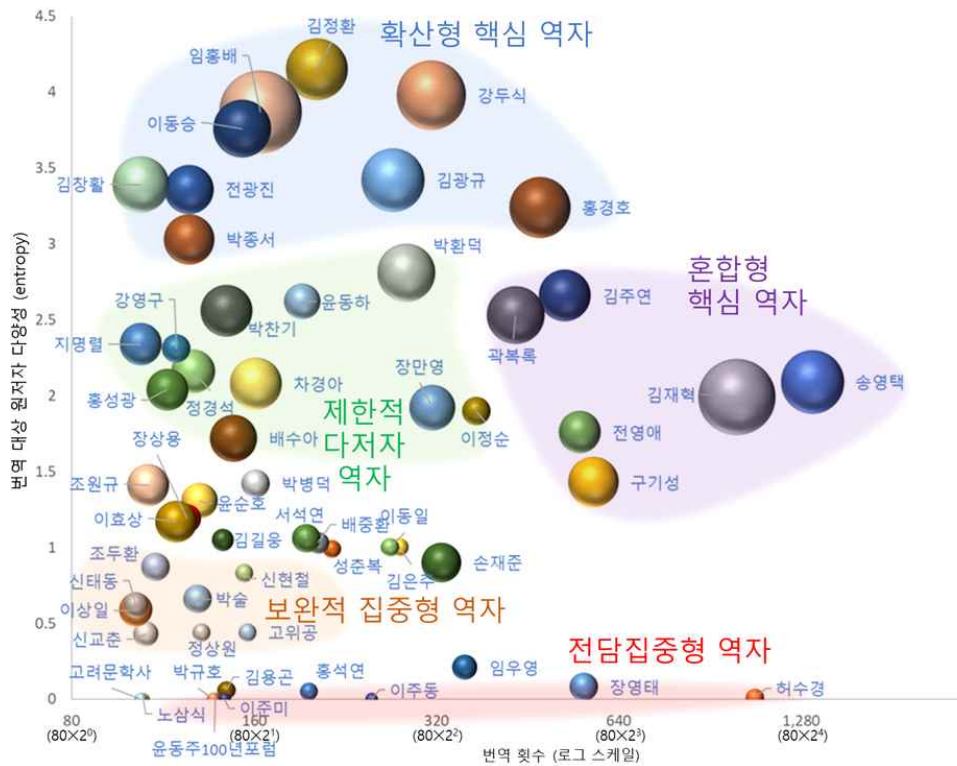
$$\text{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 = - \sum_{i=1}^K p_i \log p_i$$

이렇게 엔트로피 공식으로 측정한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은 번역 대상 원저자가 많을수록, 각 원저자의 작품을 균등하게 번역했을수록 높아진다. 반대로 한 원저자의 작품만을 번역했다면 아무리 많이 번역했다라도 다양성이 0으로 가장 낮게 측정된다.

## 5.2 번역 활동 특성 지표 측정 결과

번역 횟수가 100회 이상인 57명(상위 4.2%)의 핵심 역자는 전체 번역 횟수의 60.4%를 차지한다. 이들 핵심 역자 각각의 번역 횟수를 가로축으로 하고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을 세로축으로 하여 각 역자의 번역 활동 특성을 <그림 2>와 같은 산점도로 나타냈다. 57명 역자들의 번역 횟수와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 사이의 피어슨 상관계수는 0.048( $p=0.725$ )로 측정되어서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었다. 번역 횟수가 늘어나면 대상 원저자도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100회 이상 번역한 독일문학 역자들의 번역 행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역자의 번역 횟수와 대상 원저자 다양성, 그리고 대상 원저자 수까지 고려하면 역자의 번역 활동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지표에서 확실한 특징이 나타나는 경우를 대상으로 <그림 2>의 최상부에 위치한 확산형 핵심 역자, 오른쪽에 위치한 혼합형 핵심 역자, 최하부에 위치



〈그림 2〉 핵심 역자 57명의 번역 횟수와 대상 원저자 다양성 (원의 크기는 번역 대상 원저자 수에 비례함)

한 전담집중형 역자의 3가지 유형을 정할 수 있으며, 추가로 중앙에 위치한 제한적 다저자 역자, 중앙 아래에 위치한 보완적 집중형 역자까지 5가지로 역자 활동 유형을 구분해보았다. 이는 별도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가 아니라, 번역 횟수, 번역 대상 원저자 수,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이라는 세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탐색적 유형화이다. 따라서 57명의 핵심 역자 전체를 상호 배타적인 유형으로 강제 분류하기보다는, 세 지표상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역자들을 중심으로 대표적 활동 유형을 식별하였다. 다만 일부 역자는 여러 유형의 경계에 위치하거나 지표 조합상 특

정 유형으로 명확히 귀속되기 어려우므로, 이들은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고 경계적 사례로 남겨두었다. 유형별 대표 역자의 번역 활동 지표는 〈표 5〉에 정리하였고, 각 유형의 특성과 구분을 위한 조작적 기준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확산형 핵심 역자는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이 3.0 이상이고 원저자 수가 15명 이상인 역자들로서, 〈그림 2〉의 최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역자들은 번역량과 번역 대상 원저자가 모두 많으며, 특정 원저자에 번역을 집중하기보다 다양한 원저자를 비교적 고르게 번역함으로써 국내 독일문학 수용의 외연을 확장

〈표 5〉 유형별 대표 역자의 번역 활동 지표(유형별 대표 4명씩만 표시)

구분	역자	원저자별 번역 횟수 합계	번역 대상 원저자 수	번역 대상 원저자 다양성	주요 대상 원저자와 번역 횟수(상위 5인 이내)
확산형 핵심 역자	김정환	203	24	4.15	요한 볼프강 폰 괴테 (27), 게오르크 트라클 (18), 슈테판 게오르게 (18), 후고 폰 호프만스탈 (17), 프리드리히 뢰델린 (14)
	강두식	314	30	3.98	슈테판 게오르게 (50), 토마스 만 (40), 고트프리트 벤 (35), 요한 볼프강 폰 괴테 (33), 하인리히 하이네 (29)
	임홍배	164	43	3.87	로베르트 발저 (61), 프란츠 카프카 (23), 토마스 만 (8), 엘제 라스커-쉴러 (6), 하인리히 하이네 (5)
	이동승	153	21	3.76	프란츠 카프카 (25), 하인리히 뵐 (24), 고트프리트 벤 (15), 파울 첼란 (14), 넬리 작스 (12)
혼합형 핵심 역자	김주연	521	17	2.66	볼프강 보르헤르트 (156),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31), 라이너 마리아 릴케 (76), 고트프리트 벤 (69), 잉에보르크 바흐만 (50)
	곽복록	432	21	2.53	넬리 작스 (201), 루이제 린저 (96), 프란츠 카프카 (35), 토마스 만 (3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24)
	송영택	1,334*	25	2.09	라이너 마리아 릴케 (636), 헤르만 헤세 (378),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97), 엘제 라스커-쉴러 (22),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19)
	김재혁	1,001	37	1.99	라이너 마리아 릴케 (616), 헤르만 헤세 (210), 게오르크 트라클 (51), 잉에보르크 바흐만 (31), 베른하르트 슬링크 (25)
제한적 다저자 역자	박환덕	285	21	2.81	프란츠 카프카 (138), 요한 볼프강 폰 괴테 (34), 헤르만 헤세 (27),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 (13), 쿤터 그라스 (13)
	윤동하	192	8	2.62	헤르만 헤세 (43), 고트프리트 벤 (36), 게오르크 트라클 (31), 라이너 마리아 릴케 (29), 한스 카로사 (29)
	박찬기	144	17	2.56	요한 볼프강 폰 괴테 (65), 슈테판 츠바이크 (32), 토마스 만 (16), 헤르만 헤세 (9), 한스 카로사 (3)
	차경아	161	17	2.08	잉에보르크 바흐만 (108), 프리드리히 뉘렌마트 (13), 미하엘 엔데 (7), 루이제 린저 (5), 프리드리히 드 라 모테 푸케 (5)
보완적 집중형 역자	신현철	154	2	0.83	베르톨트 브레히트 (114), 에리히 케스트너 (40)
	신태동	102	4	0.62	라이너 마리아 릴케 (90), 헤르만 헤세 (10),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 하인리히 하이네 (1)
	고위공	156	2	0.44	파울 첼란 (142), 하인리히 뵐 (14)
	정상원	131	2	0.44	에리히 케스트너 (119), 슈테판 츠바이크 (12)
전담 집중형 역자	허수경	1,073**	2	0.01	파울 첼란 (1,072), 쿠르트 레온하르트 (1)
	이주동	250	1	0.00	프란츠 카프카 (250)
	이준미	143	1	0.00	프란츠 카프카 (143)
	박규호	137	1	0.00	볼프강 보르헤르트 (137)

\* 송영택의 번역 횟수는 1,332건이지만, 그중 2인 공저 작품이 두 건 있어서 비율 산출을 위한 원저자별 번역 횟수 합계는 1,334건으로 산출됨.

\*\* 허수경의 번역 횟수는 1,072건이지만, 그중 한 작품이 파울 첼란과 쿠르트 레온하르트의 공저여서 비율 산출을 위한 원저자별 번역 횟수 합계는 1,073건으로 산출됨.

한 집단이다. 폭넓은 원저자군의 독일문학을 활발하게 소개한 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두식의 경우 슈테판 게오르게(50회), 토마스 만(40회), 고트프리트 벤(35회), 요한 볼프강 폰 괴테(33회), 하인리히 하이네 (29회) 등으로 여러 원저자를 고르게 번역해왔다. 이 유형의 대표 역자는 이외에도 김정환, 임홍배, 이동승, 홍경호, 김광규, 전광진, 박중서, 김창환 등이 있다.

혼합형 핵심 역자는 번역 횟수가 400회 이상으로 매우 많고 원저자 수 역시 10명 이상이지만, 다양성은 1.0 이상 3.0 미만에 머무는 역자들로서, <그림 2>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번역량이 매우 많고 번역 대상 원저자도 적지 않지만, 다양성이 낮아서 실제 번역은 일부 핵심 원저자에 집중된 유형이다. 번역 대상 원저자군은 넓지만, 전집/선집 번역이나 특정 정전 원저자 중심의 장기 프로젝트로 인해 번역량이 일부 원저자에 더 많이 배분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영택은 총 번역 횟수 합계 1,334회 번역 가운데 라이너 마리아 릴케 636회, 헤르만 헤세 378회, 요한 볼프강 폰 괴테 197회로 상위 3명만으로도 전체 번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엘제 라스카-쉴리, 레마르크 등 여러 원저자를 조금씩 번역하였으므로 정전 저자 중심의 혼합형 역자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이 유형의 대표 역자로는 김주연, 광복록, 김재혁, 구기성, 전영애 등이 있다.

전담집중형 역자는 다양성이 0.1 이하이고 원저자 수가 5명 이하인 역자들이다. 특히 원저자 수가 1명이거나, 원저자 수가 2명 이상이라도 다양성이 0에 매우 가까운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의 역자들은 <그림 2>의 하단

부 가로축에 가깝게 자리잡고 있다. 번역량은 많은 편이지만 다양성이 극히 낮은 유형으로, 한 명의 원저자를 장기간 집중 번역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특정 독일 저자의 국내 정전화와 전집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역자군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허수경이다. 총 번역 횟수 합계 1,073회 중 파울 첼란만 1,072회 번역하였고 쿠르트 레온하르트를 1회 번역한 것도 파울 첼란과의 공저 작품이므로 파울 첼란 전담 역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주동(프란츠 카프카 250회), 이준미(프란츠 카프카 143회), 박규호(볼프강 보르헤르트 137회), 노삼식(하인리히 하이네 105회)은 번역 대상 원저자가 1명씩뿐이어서 엔트로피가 0, 즉 다양성이 전혀 없는 경우이다. 이외에 김용근(144회, 2명), 홍석연(197회, 2명) 등은 허수경과 유사하게 거의 한 원저자 위주로 번역하여 대상 원저자 다양성이 0.1도 안 되는 역자들이다.

제한적 다저자 역자는 번역 횟수가 400회 미만이고 원저자 수가 5명 이상이며, 다양성이 1.8 이상 3.0 미만인 역자들로서, <그림 2>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유형의 역자들은 번역량은 상위권에 속하지만 번역 대상 원저자 수가 중간 수준이며 다양성도 중간 이하 정도인 유형이다. 확산형 핵심 역자 유형에 비해 범위는 좁고, 집중형 핵심 역자 유형보다는 분산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은 특정 저자 전담형은 아니지만 한정된 번역 활동 범위를 유지하면서 비교적 번역 양상이 안정적인 역자들로, 특정 장르나 문제의식 중심 번역에 가까운 양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환덕은 프란츠 카프카(138회), 요한 볼프강 폰 괴테(34회),

헤르만 헤세(27회),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13회), 쿤터 그라스(13회)의 5명을 약간씩 차이를 두면서 번역하였지만 이들 외에도 조금씩 번역한 원저자가 16명이 더 있다. 이 유형의 대표 역자로는 박환덕 이외에 윤동하, 박찬기, 차경아 등이 있으며 <그림 2>의 중앙 왼쪽에 위치한 지명렬, 강영구, 정경석, 홍성광도 포함된다.

보완적 집중형 역자는 원저자 수가 2~7명이 고 다양성이 0.4 이상 0.9 미만인 역자들로서, <그림 2>의 왼쪽 아래, 전담집중형 역자 유형 바로 위에 위치한다. 이 유형의 역자들은 번역량은 적지 않지만 다양성이 다소 낮은 유형으로, 한 명의 원저자를 집중 번역하면서 보완적으로 소수의 타 원저자를 약간씩 번역한 경우이다. 이들은 특정 독일 저자의 국내 정전화에 기여하되, 관련된 타 저자의 저작을 일부 추가로 소개한 역자군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는 고위공이 있다. 그는 총 번역 156회 중 142회를 파울 첼란에 집중한 역자이지만, 보완적으로 하인리히 뵐을 14회 번역하기도 하였다. 신현철 역시 베르톨트 브레히트 번역에 집중했으나(114회), 보완적으로 에리히 케스트너를 40회 번역하였다. 그 외에 이 유형에 속한 대표 역자로는 조두환, 박술, 신태동, 이상일, 정상원, 신교춘 등이 있다.

## 6.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 분석을 통한 역자 관계 구조

5장에서 역자의 번역 활동 유형을 규명한 데 이어, 이 장에서는 연구 문제 3을 해결하기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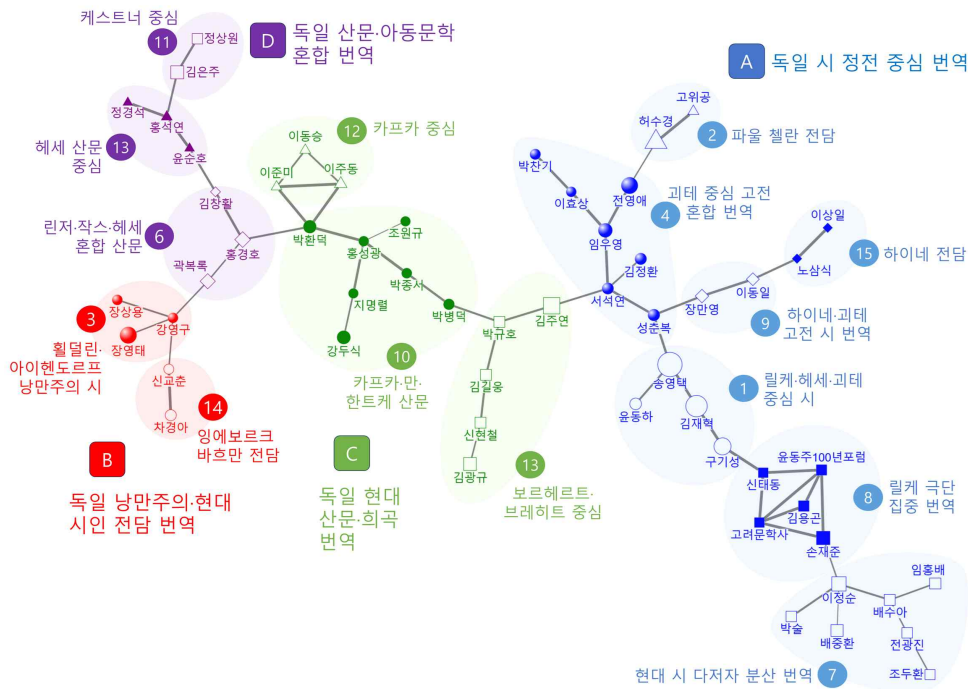
해서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를 기반으로 역자 간 관계 구조를 분석한다.

먼저 각 역자 사이에 번역 대상 원저자가 얼마나 겹치는가를 측정하여 역자 간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7명의 핵심 역자가 각 원저자의 작품을 번역한 횟수를 벡터로 만든 다음, 역자들 사이의 벡터 유사도를 코사인 계수 공식으로 산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코사인 유사도로 57명 역자 사이의 대상 원저자 중복도 행렬을 확보하였다. 그런 후 대상 원저자 중복도 행렬을 입력 데이터로 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알고리즘(Schvaneveldt, 1990)을 적용한 결과, <그림 3>과 같은 57명 역자의 대상 원저자 중복도 네트워크가 도출되었다. 이 그림에는 PNNC 알고리즘(이재윤, 2006)으로 도출한 계층적 군집 구조가 함께 반영되어 있다. 57명 역자의 대상 원저자 중복도 데이터에 PNNC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는 4개의 대군집과 15개의 소군집으로 나뉘었다. <표 6>에 각 군집에 속한 역자들이 공통으로 많이 번역한 대상 원저자들을 평균 번역 비중과 함께 제시하였다. 각 군집의 명칭은 소속 역자들의 공통 번역 대상 원저자를 고려하여 명명하였다.

군집분석 결과로 도출된 각 역자 군집에 대해서 공통된 주요 대상 원저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해볼 수 있다.

### a) 대군집 A: 독일 시 정전 중심 번역 군집

<그림 3>의 오른쪽에 위치한 대군집 A는 7개의 소군집이 모인 대형 군집이다. 주로 독일 시 정전 중심의 번역을 수행하는 역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각 소군집별로 소속 역자와 주요 번역 대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핵심 역자 57명의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 네트워크와 PNNC 군집 (노드의 크기는 번역 횟수에 비례함)

<표 6> 핵심 역자 57명의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 PNNC 군집과 공통 대상 원저자

대군집	소군집	소속 역자	공통 번역 대상 원저자 (평균 번역 비중)
A. 독일 시 정전 중심 번역	1	송영택, 김재혁, 구기성, 윤동하	<b>라이너 마리아 릴케 (49.0%)</b> , 헤르만 헤세 (22.4%), 요한 볼프강 폰 괴테 (6.7%), 게오르크 트라클 (5.5%), 고트프리트 벤 (4.8%)
	2	허수경, 고위공	<b>파울 첼란 (95.5%)</b> , 하인리히 뵐 (4.5%)
	4	전영애, 임우영, 성춘복, 김정환, 서석연, 박찬기, 이효상	<b>요한 볼프강 폰 괴테 (59.0%)</b> , 라이너 마리아 릴케 (11.7%), 슈테판 츠바이크 (3.2%), 파울 첼란 (3.2%), 토마스 만 (1.9%)
	7	이정순, 배중환, 임홍배, 배수아, 박술, 전광진, 조두환	게오르크 트라클 (18.0%), 엘제 라스카-쉴러 (16.3%), 후고 폰 호프만스탈 (13.6%), 요한 페터 헤벨 (9.5%), 로베르트 발저 (9.4%)
	8	손재준, 김용곤, 신태동, 윤동주100년포럼, 고려문학사	<b>라이너 마리아 릴케 (94.6%)</b> , 헤르만 헤세 (2.4%), 게오르크 트라클 (1.8%), 요한 볼프강 폰 괴테 (0.3%), 막스 프리쉬 (0.2%)
	9	장만영, 이동일	<b>하인리히 하이네 (43.3%)</b> , <b>요한 볼프강 폰 괴테 (39.7%)</b> , 라이너 마리아 릴케 (14.6%), 프리드리히 뤼케르트 (0.8%), 후고 폰 호프만스탈 (0.3%)
	15	노삼식, 이상일	<b>하인리히 하이네 (96.1%)</b> , 프리드리히 뢰탈린 (1.0%), 알프레드 안더쉬 (1.0%), 헤르만 헤세 (0.5%), 페터 바이스 (0.5%)

대군집	소군집	소속 역자	공통 번역 대상 원저자 (평균 번역 비중)
B. 독일 낭만주의·현대시인 전담 번역	3	장영태, 장상용, 강영구	<b>프리드리히 뢰델린 (39.3%), 요제프 폰 아이헨도르프 (31.3%),</b> 프리드리히 쉴러 (8.6%), 넬리 작스 (7.0%), 잉에보르크 바흐만 (6.2%)
	14	차경아, 신교춘	<b>잉에보르크 바흐만 (80.2%),</b> 프리드리히 뢰렌마트 (4.0%), 프란츠 카프카 (2.4%), 미하엘 엔테 (2.2%), 루이제 린저 (2.0%)
C. 독일 현대산문·희곡 번역	5	김주연, 김광규, 신현철, 김길웅, 박규호	<b>볼프강 보르헤르트 (35.7%),</b> 베르톨트 브레히트 (28.4%), 귄터 아이히 (5.4%), 에리히 케스트너 (5.2%), 요한 볼프강 폰 괴테 (5.0%)
	10	강두식, 박환덕, 박병덕, 박종서, 홍성광, 조원규, 지명렬	<b>프란츠 카프카 (34.6%),</b> 토마스 만 (12.7%), 페터 한트케 (11.1%), 볼프강 보르헤르트 (6.8%), 헤르만 헤세 (6.0%)
	12	이주동, 이동승, 이준미	<b>프란츠 카프카 (72.1%),</b> 하인리히 뵐 (5.2%), 고틀프리트 벤 (3.3%), 파울 켈란 (3.1%), 넬리 작스 (2.6%)
D. 독일 산문·아동문학 혼합 번역	6	홍경호, 광복록, 김창활	루이제 린저 (23.2%), 넬리 작스 (15.5%), 프란츠 카프카 (14.5%), 헤르만 헤세 (14.0%), 토마스 만 (4.8%)
	11	김은주, 정상원	<b>에리히 케스트너 (72.4%),</b> 헤르만 헤세 (23.0%), 슈테판 츠바이크 (4.6%)
	13	홍석연, 윤순호, 정경석	<b>헤르만 헤세 (78.5%),</b> 요한 볼프강 폰 괴테 (3.9%), 루이제 린저 (2.8%), 프란츠 카프카 (2.6%), 테오도르 슈토름 (2.6%)

소군집 1(릴케·헤세·괴테 중심 시 번역 군집)은 독일 시 정전의 핵심 축을 장기간 반복 번역한 역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이 군집에는 송영택, 김재혁, 구기성, 윤동하가 속하며, 이들의 주요 번역 대상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평균 번역 비중 49.0%), 헤르만 헤세(22.4%), 요한 볼프강 폰 괴테(6.7%), 게오르크 트라클(5.5%), 고틀프리트 벤(4.8%) 등이다. 따라서 이 군집의 역자들은 릴케를 핵심 축으로 하되 헤세와 괴테를 주요 번역 대상으로 포함하는 전형적인 독일 시 정전 번역 역자들로 볼 수 있다.

소군집 2(파울 켈란 전담 번역 군집)에는 허수경과 고위공이 속한다. 이들의 번역은 파울 켈란(95.5%)에 거의 전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보조적으로 하인리히 뵐(4.5%)이 나타난다. 특정 시인의 국내 정전화에 특화된 극단적 전담형 번역의 대표 사례다.

소군집 4(괴테 중심 고전 혼합 번역 군집)는

전영애, 임우영, 성춘복, 김정환 등이 속했으며, 괴테(59.0%)를 번역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는다. 이외에 릴케(11.7%), 슈테판 츠바이크(3.2%), 켈란(3.2%), 토마스 만(1.9%) 등을 함께 번역했다. 이들은 고전 중심의 혼합형 번역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소군집 7(현대 시 다저자 분산 번역 군집)에는 이정순, 임홍배, 전광진 등이 포함된다. 트라클(18.0%), 엘제 라스커-쉴러(16.3%), 후고 폰 호프만스탈(13.6%), 요한 페터 헤벨(9.5%), 로베르트 발저(9.4%) 등 여러 현대 시인이 비교적 고르게 분산된다. 단일 축보다 동시대 시 스펙트럼을 넓히는 번역 양상이 두드러진다.

소군집 8(릴케 극단 집중 군집)은 손재준, 김용근, 윤동주100년포럼, 고려문학사로 구성되며, 릴케(94.6%)에 대한 번역이 절대적이다. 개인 역자와 단체 번역이 함께 포함된 전담형으로 기획 및 총서 성격의 번역 행태를 짐작할 수 있다.

소군집 9(하이네·괴테 고전 시 번역 군집)에는 장만영과 이동일이 속한다. 하인리히 하이네(43.3%)와 괴테(39.7%)가 양 축을 이루고 나머지는 릴케(14.6%) 번역 비중이 대부분이다. 19세기 고전 시인 두 명으로 번역 대상이 양분된 것이 특징이다.

소군집 15(하이네 전담 번역 군집)은 노삼식과 이상일로 구성되며, 번역 대상이 하이네(96.1%)에 거의 전적으로 집중된다. 특정 고전 시인 전담형의 전형적 사례다.

#### b) 대군집 B: 독일 낭만주의·현대 시인 전담 번역 군집

대군집 B는 <그림 3>의 왼쪽 아래에 2개의 소군집이 모여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다. 주로 독일 낭만주의 시인이나 현대 시인에 집중하는 역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각 소군집별로 소속 역자와 주요 번역 대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군집 3(휠덜린·아이헨도르프 낭만주의 시 군집)에는 장영태, 장상용, 강영구가 속한다. 프리드리히 휠덜린(평균 번역 비중 39.3%)과 요제프 폰 아이헨도르프(31.3%)가 핵심이며, 프리드리히 실러(8.6%), 넬리 작스(7.0%) 작품의 번역이 일부 추가된다. 낭만주의 시 전통에 대한 선택적 집중이 분명하다.

소군집 14(잉에보르크 바흐만 전담 군집)에는 차경아와 신교춘이 속하며, 잉에보르크 바흐만(80.2%)에 대한 번역 비중이 압도적이다. 프리드리히 뒤렌마트(4.0%), 프란츠 카프카(2.4%)도 일부 번역하고 있다. 이들은 현대 시 단일 저자 전담형으로 볼 수 있다.

#### c) 대군집 C: 독일 현대 산문·희곡 번역 군집

대군집 C는 <그림 3>의 중앙에 위치한 3개의 소군집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속한 역자들은 현대 산문과 희곡 저자, 특히 카프카 작품의 번역이 활발하다. 각 소군집별로 소속 역자와 주요 번역 대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군집 5(보르헤르트·브레히트 중심 군집)에는 김주연, 김광규 등이 속한다. 볼프강 보르헤르트(35.7%)와 베르톨트 브레히트(28.4%)가 핵심 번역 대상이며, 쿤터 아이히(5.4%), 에리히 케스트너(5.2%) 작품의 번역이 일부 포함된다. 전후 독일문학·정치적 문학으로 번역 대상이 집중된다고 할 수 있다.

소군집 10(카프카·만·한트케 산문 군집)에는 강두식, 박환덕, 박종서 등이 포함된다. 카프카(34.6%), 만(12.7%), 페터 한트케(11.1%), 보르헤르트(6.8%)가 주된 번역 대상이다. 이들은 현대 산문의 핵심 정전을 다양한 원저자의 작품들로 번역하여 선보인 역자들이다.

소군집 12(카프카 위주 번역 군집)은 이주동, 이동승, 이준미로 구성되며, 카프카(72.1%) 작품의 번역 비중이 매우 높다. 이밖에 뵐(5.2%) 작품의 번역이 일부 추가된다.

#### d) 대군집 D: 독일 산문·아동문학 혼합 번역 군집

대군집 D는 <그림 3>의 왼쪽 위에 위치한 3개의 소군집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속한 역자들은 산문·아동문학을 포괄하는 혼합 번역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각 소군집별로 소속 역자와 주요 번역 대상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소군집 6(린저·작스·헤세 혼합 산문 군집)

에는 홍경호, 광복록, 김창활이 속한다. 루이제 린저(23.2%), 작스(15.5%), 카프카(14.5%), 헤세(14.0%)가 주요 번역 대상이다. 이들은 여성 저자와 산문 중심의 다저자 혼합형 역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소군집 11(케스트너 중심 군집)에는 김은주와 정상원이 포함되며, 케스트너(72.4%)와 헤세(23.0%)가 주요 번역 대상이다. 이들은 아동·청소년문학 번역 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소군집 13(헤세 중심 혼합 군집)에는 홍석연, 윤순호, 정경석이 속한다. 헤세(78.5%) 작품의 번역 비중이 높으며, 괴테(3.9%)와 린저(2.8%)가 일부 포함된다. 헤세 중심의 혼합 산문 번역 역자들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독일 문학 역자들이 공통된 대상 원저자를 통해 뚜렷한 군집을 형성하는 현상은, 역자들의 번역 활동이 주체적인 번역 대상 선택 행위의 연속이며, 상호 텍스트적 참조와 경쟁을 통해 한국어판 독일 문학이라는 번역 수용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7. 결론

이 연구는 한국어 번역 독일문학 서지 DB를 활용하여, 번역 수용 과정의 핵심 행위자인 역자의 활동 양상과 관계 구조를 역사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역자의 번역 생산 구조, 번역 대상 원저자 포트폴리오, 그리고 번역 대상 원저자 중복도를 기반으로 한 역자 간 관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번역 독일문학의 번역 생산은 다수의 역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보이지만, 실제 번역 활동은 소수의 역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1,359명의 역자가 번역을 수행했지만, 전체 번역 횟수의 절반 이상인 50.4%를 상위 2.6%인 36명의 역자가 차지했다. 이는 번역 수용에 많은 역자들이 참여하긴 하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특정 역자 집단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번역 횟수 100회 이상으로 상위 4.2%에 해당하는 핵심 역자 57명들에 대해 번역 활동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번역 횟수, 대상 원저자 다양성, 대상 원저자 수까지 고려한 결과, 두드러진 5가지의 역자 활동 유형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폭넓은 저자군의 독일문학을 활발하게 소개한 확산형 핵심 역자 유형, 번역량이 매우 많고 번역 대상 원저자도 적지 않지만 일부 핵심 원저자의 번역에 집중된 혼합형 핵심 역자 유형, 번역량은 많은 편이지만 한 명의 원저자 번역에 극도로 집중된 전담집중형 역자 유형의 세 가지 유형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제한적 다저자 역자 유형, 보완적 집중형 역자 유형 등이 확인된다.

셋째, 역자 간 관계를 번역 대상 원저자의 중복도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역자 집단은 여러 군집으로 분화되며, 각 군집은 특정 원저자군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역자 간 군집 구조는 번역 수용이 단일한 흐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대상 원저자군을 중심으로 형성된 복수의 하위 구조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역자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특

정 저자군의 국내 수용을 조직하는 선택 주체로서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국내 독일문학의 수용은 역자 개개인의 산발적 선택만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특정 원저자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원저자-역자 관계 속에서 일정한 서지적 연관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출판사와 출판 제도의 영향도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이 연구는 번역을 수행한 행위자인 역자를 중심에 놓고 번역 수용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번역사를 단순한 텍스트의 이동 과정이 아니라, 특정 행위자 집단의 선택과 활동을 통해 구성되는 구조로 재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역자를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그들의 번역 활동과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번역사 연구의 분석 범위를 확장하였다. 계량서지학 분야의 다양성 지수와 서지결합 개념을 번역사 연구에 적용하여, 역자의 번역 활동 특성을 파악하고 역자 간 관계를 정의하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는 번역사 연구에서 역자 집단의 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역자 중심 분석은 독일문학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 문학의 번역사에도 적용 가능하다. 이를 통해 번역사 계량서지학은 특정 사례 연구를 넘어, 비교 가능한 일반적 연구 방법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별 역자 단위에서 해당 역자의 번역 생산성, 번역 활동 특성, 타 역자와의 관계 특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자 프로파일(translator

profile)'의 구성 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 연구자의 정보 요구와 활동 단계를 파악하여 다차원적인 연구자 프로필을 구성하는 프레임워크(이석형, 정서영, 2025)처럼, 역자에 대한 다각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역자 프로필 구성 프레임워크(translator profiling framework)를 개발하는 것도 기대된다. 이는 번역사 계량서지학을 역자 관련 정보서비스에 활용하는 구체적인 응용 사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번역 활동의 양적 구조와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역자의 학문적 배경, 세대, 번역 이념 등 질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번역 대상 선택과 번역 경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시기를 통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므로 시기별 변화나 장르별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했다. 번역 수용 양상은 시기와 장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보다 더 세분화된 분석이 요구된다. 나아가서 인용을 연결 단서로 하는 계량서지학에서 학술지가 게재 논문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듯이, 번역을 연결 단서로 하는 번역사 계량서지학에서 번역사의 출판 플랫폼에 해당하는 출판사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계량서지학에서 학술지에 대한 분석은 최근에도 학술 생태계의 지형을 살피기 위한 목적으로 종종 시도되고 있다(김혜진, 2024; 정유경, 2025). 번역사 계량서지학에서 출판사에 대한 분석은 원저자에 대한 분석과 역자에 대한 분석에 이어서 번역수용사 연구의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김혜진 (2024). 국내 문헌정보학 주요 저널의 자아 인용정체성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1(2), 1-18.  
<http://doi.org/10.3743/KOSIM.2024.41.2.001>
-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 (2026). 독일문학번역 DB 구축과 번역비평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2단계 최종보고서.
- 유건수, 김보경, 김지윤, 전세진, 정기인, 정성훈, Seth Chandler (2023). 한국문학 영어번역 양상 멀리서 읽기(1): 현대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24(1), 7-42.
- 이석형, 정서영 (2025). 이용자 프로파일링 기반 학술정보 서비스 프레임워크 설계 및 타당성 검증. *정보관리학회지*, 42(4), 349-374. <http://doi.org/10.3743/KOSIM.2025.42.4.349>
- 이재운 (2006). 지적 구조 분석을 위한 새로운 클러스터링 기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4), 215-231. <http://doi.org/10.3743/KOSIM.2006.23.4.215>
- 이재운 (2008). 서지적 저자결합분석: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새로운 접근. *정보관리학회지*, 25(1), 173-190. <http://doi.org/10.3743/KOSIM.2008.25.1.173>
- 이재운 (2013).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http://doi.org/10.3743/KOSIM.2013.30.4.241>
- 이재운, 박지영 (2025). 한국어 번역 독일문학 서지의 역사 계량서지학적 분석: 멀리서 읽기를 통한 번역사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2(1), 351-374. <http://doi.org/10.3743/KOSIM.2025.42.1.351>
- 전기화, 김지윤, 유건수, 전세진, 정기인, 정성훈, Seth Chandler (2023). 한국문학 영어번역 양상 멀리서 읽기(2):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번역연구*, 14, 79-118.
- 정유경 (2025). 국내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학술지 동시인용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42(4), 467-488.  
<http://doi.org/10.3743/KOSIM.2025.42.4.467>
- 최은경 (2024). 사회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번역가 네트워크 연구: 한국문학 영어 번역 공역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5(3), 177-197. <http://doi.org/10.15749/jts.2024.25.3.007>
- Berglund, K., Gulddal, J., & King, S. (2024). On top of the world: mapping the Nordic crime fiction boom based on translation data. *Translation Studies*, 1-22.  
<https://doi.org/10.1080/14781700.2024.2333737>
- Hérubel, J.-P. V. M. (1999). Historical Bibliometrics: Its Purpose and Significance to the History of Disciplines [Review of Dictionary of Bibliometrics by V. Diodato; Bibliometrics: An Annotated Bibliography by M. K. Sellen]. *Libraries & Culture*, 34(4), 380-388.
- Kessler, M. M. (1963). Bibliographic coupling between scientific papers. *American Documentation*, 14(1), 10-25. <https://doi.org/10.1002/asi.5090140103>

- Lefevere, A. (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Routledge.
- Schvaneveldt, R. W. (1990). *Pathfinder Associative Networks: Studies in Knowledge Organization*. Norwood, NJ: Ablex.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Routledge.
- Vimr, O. (2024). A computational approach to the history of Czech literature in translation during the Cold War (1948-1989). *Translation Studies*, 1-19.  
<https://doi.org/10.1080/14781700.2024.2421550>
- Zhao, D. & Strotmann, A. (2008). Evolution of research activities and intellectual influences in information science 1996-2005: Introducing author bibliographic-coupling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9(13), 2070-2086.  
<https://doi.org/10.1002/asi.20910>
- Zhou, X. & Sun, S. (2016). Bibliography-based quantitative translation history. *Perspectives*, 25(1), 98-119. <https://doi.org/10.1080/0907676X.2016.117710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i, Eun-Kyoung (2024). Exploring co-translator network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25(3), 177-197.  
<http://doi.org/10.15749/jts.2024.25.3.007>
- Institute for Germ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6). *Final Report of the Research Project: Development of Database for Translation of German Literature into Korean and Translation Critique (Institute Programs in the Humanities & Social Sciences), 2nd Phase*.
- Jeon, Kihwa, Kim, Jiyeon, Yoo, Geonsu, Jeon, Se-jin, Chong, Ki In, Jung, Seong-hoon, & Chandler, S. (2023).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from a distance (2): Classical literature. *The Society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14, 79-118.
- Jeong, Yoo Kyung (2025). Journal co-citation analysis of digital humanit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4), 467-488.  
<http://doi.org/10.3743/KOSIM.2025.42.4.467>
- Kim, Hea-Jin (2024). A comparative analysis of ego-centered journal citation identitie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1(2), 1-18. <http://doi.org/10.3743/KOSIM.2024.41.2.001>

- Lee, Jae Yun (2006). A novel clustering method for examining and analyz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a scholarly fiel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3(4), 215-231. <http://doi.org/10.3743/KOSIM.2006.23.4.215>
- Lee, Jae Yun (2008). Bibliographic author coupling analysis: a new methodological approach for identifying research tren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1), 173-190. <http://doi.org/10.3743/KOSIM.2008.25.1.173>
- Lee, Jae Yun (2013). A comparison study on the weighted network centrality measures of tnet and W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41-264. <http://doi.org/10.3743/KOSIM.2013.30.4.241>
- Lee, Jae Yun & Park, Ziyong (2025). A historical bibliometric analysis of bibliographies of translated German literature in Korean: A distant reading approach to translation hist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1), 351-374. <http://doi.org/10.3743/KOSIM.2025.42.1.351>
- Lee, Seok-Hyoung & Jeong, Seo-Young (2025). Design and validity verification of user profiling-based academic information service framework.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42(4), 349-374. <http://doi.org/10.3743/KOSIM.2025.42.4.349>
- Yoo, Geonsu, Kim, Bokyung, Kim, Jiyeon, Jeon, Se-jin, Chong, Ki In, Jung, Seong-hoon, & Chandler, S. (2023). Reading Korean literature in English translation from a distance (1): Modern literature.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4(1), 7-42.